

현대 기술종교와 기독교 윤리

- 트랜스휴머니즘의 포스트휴먼 담론과 GNR-테크놀로지에 대한 비판적 성찰

박완석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종교철학, 박사과정)

I. 들어가는 말

II. 포스트휴먼 담론과 양상들

1.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먼
2. 포스트휴먼과 GNR-테크놀로지: 인간향상과 마인드 업로딩
3. 포스트휴먼의 인간 존엄성과 사회정의의 문제

III. 하나님 형상의 관계적 인간학과 인간 존엄성, 그리고 사회정의

1. 하나님의 형상과 전인적 인격
2.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 존엄성
3. 하나님의 형상과 사회정의

I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4.60.08>

• ABSTRACT •

Modern Technological Religion and Christian Ethics: A Critical
Reflection on the Posthuman Discourse of Transhumanism and
GNR-Technology

Park Wanseok(the United Graduate School of Theology Yonsei University Ph.D.
Student, Philosophy of religion)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s embedded in the posthuman discourse of transhumanism—such as the devaluation of life, distortion of human nature, neglect of finitude, reinforcement of elitism and eugenics, and the oversight of technological disparity—as it seeks to extend human lifespan, enhance physical capabilities, and ultimately overcome death through advanced technology. From a christian ethical perspective, this paper critiques the religious anthropology, soteriology, and eschatology implied in posthuman discourse. Furthermore, this study proposes the concept of ‘image of God(*Imago Dei*)’ as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human dignity and social justice in the age of advanced technolog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oncept of image of God transcends the boundaries of specific religions, offering a universal value for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and social justice.

Key words: Transhumanism, Posthuman, Homo Deus, Human Dignity,
Technological Gap, Image of God

I. 들어가는 말

첨단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바이오테크 시대(biotech century)는 장차 도래할 새로운 인간 종의 출현을 예상하고 있다. 전통적 인간과 구분하여 기술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되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서 ‘포스트휴먼(posthuman)’, ‘사이보그(cyborg)’, ‘호모 데우스(*Homo Deus*)’와 같은 수식어들이 이러한 미래적 인간상 혹은 새로운 종의 특징 잘 나타낸다.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에 의하면 첨단 과학기술은 자연과 인간 본성을 예상하지 급격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하지만 그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까지 우리는 과학기술로 인해 초래될 문제들을 충분히 숙고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리프킨은 “우리는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거의 없으며 그 귀착점이 어디인지에 대한 논의조차도 없다”¹⁾고 경고한다. 반대로 이러한 리프킨의 염려와 달리, 과학기술의 발전이 문명과 인간의 삶에 큰 진보와 향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주장하는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이라는 일련의 사조가 존재한다. 트랜스휴머니스트들에 의하면 인간은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 장차 유한한 몸의 한계를 극복하여 불멸을 쟁취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과학기술로 인해 몸의 한계와 죽음을 초극한 미래의 인간을 일컬어 ‘포스트휴먼’이라 칭한다. 이는 명백히 ‘인간-이후의 인간’으로 더 이상 ‘호모 사피엔스’라 불릴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존재를 의미한다.

이러한 트랜스휴머니즘의 문제는 리프킨의 지적처럼, 과학기술이 초래하게 될 인간 존엄성의 침해에 관련한 윤리적 문제와 기술의 빈부격차에

1) Jeremy Rifkin, *The Biotech Century*, 전영택·전병기 역. 『바이오테크 시대』 (파주: 민음사, 1999), 73.

따른 차별과 배제라는 사회적 정의의 문제를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욱이 트랜스휴머니즘이 전제하고 있는 인간론과 구원론은 하나님 형상(*Imago Dei*)에 근거한 신학적 인간학에 비추어 볼 때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인간의 몸을 언제든지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대체 가능한 일종의 마음의 외피(*outer skin*)로 여기며, 몸이 담고 있는 마음(*mind*)을 인공지능에 접속함에 따라 삭제되지 않는 정보(*information*)로 환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육 이원론과 호모 사피엔스의 최종 목적을 불멸로 여기는 일종의 유사-구원론(*quasi-soteriology*)이 그러하다. 마찬가지로 첨단 과학기술로 인해 예견되는 포스트휴먼의 실제적인 양상들이 초래할 인권침해와 기술의 빈부격차의 문제 또한 사회적 정의와 관련하여 윤리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조망되어야 한다. 앞으로 포스트휴먼 사회는 인공지능 데이터를 독점하는 소수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부가 집중될 수 있는 경향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술격차로 인한 계급의 분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트랜스휴머니즘의 종교담론의 문제점과 포스트휴먼을 추구하는 기술발전의 실제적인 양상들이 불리일수록 인간 존엄성의 훼손과 침해, 기술격차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하나님의 형상에 근거한 신학적 인간학과 인간 존엄성의 신학적 함의에 기초하여 평가·비판한다. 하나님의 형상은 역사 속에서 특정한 인종과 계급의 구분을 넘어서 모든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을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의무와 당위를 부여받은 공동체적·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상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입장에 근거한 평가와 비판을 통해 현대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이 보다 심도 있게 인간 존엄성과 관련한 윤리적 문제와 사회정의를 고려하며 전개될 수 있는 흐름을 유도하는 윤리적 담론형성에 일면 기여하고자

한다.

II. 포스트휴먼 담론과 상상들

‘포스트휴먼’은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sim),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의 사조 속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용어이다. 하지만 ‘포스트휴먼’을 둘러싼 포스트휴머니즘과 트랜스휴머니즘의 논의들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포스트휴먼’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어떤 맥락과 사조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포스트휴머니즘이라 불리는 사조의 다양성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의 기술 철학자 야니나 로(Janina Loh)에 따르면 이 사조들을 크게 ‘트랜스휴머니즘(TH)’과 ‘기술적 포스트휴머니즘(tPH)’,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kPH)’²⁾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트랜스휴머니즘을 살펴보면, “트랜스휴머니즘의 방법은 인간을 기술적 수단을 통해 포스트휴먼 존재로 변형하는 것”³⁾으로 여기서 과학 기술은 “인간을 인간x.0으로 최적화하는 목적을 위한 매체와 수단 역할을 담당한다.”⁴⁾ 그리고 기술적 포스트휴머니즘은 트랜스휴머니즘과 같이 과학기술을 통해 인간 ‘향상(enhancement)’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향상을 넘어 “인간 x.0이 아니라 기계적 ‘슈퍼종’의 창조”⁵⁾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트랜스휴머니즘 안에서 보다 급진적인 이들의 사상을 가리켜 기술적 포스트휴머니즘이라 칭하며, 전자에서 ‘포스트휴먼’은 인간의 연장인 반면에, 후자의 경우 ‘포스트휴먼’은 이전의 인간 종과 구

2) Janina Loh, *Trans-und Posthumanismus zur Einführung*, 조창오 역.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 (부산: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21.

3) 위의 책, 18.

4) 위의 책, 18.

5) 위의 책, 20.

분될 수 있는 새로운 ‘호모’의 탄생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과 달리,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은 주로 근대적 휴머니즘에 대한 비판과 주로 관련이 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여자/남자, 자연/문화, 주체/객체와 같은 전통적인 인본주의적 이분법⁶⁾의 해체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을 수단을 통해 인간 ‘향상’ 혹은 ‘슈퍼종의 창조’와 같은 트랜스휴머니즘과 이상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그녀에 따르면,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은 “트랜스휴머니즘처럼 현재적 인간을 개선한 버전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추구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우주상을 전체적으로 변혁”⁷⁾하고자 하는 것이다.

프란체스카 페란도(Francesca Ferrando)에 의하면 ‘포스트휴먼’ 개념은 “포스트휴머니즘뿐만이 아니라 트랜스휴머니즘과 안티휴머니즘(그리고 이들의 변형), 메타휴머니즘, 포스트인문학과 메타인문학, 객체지향적 존재론과 비인간적 전회⁸⁾ 등에서 다양하게 발전되며 인용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포스트휴먼의 다의성은 “비전문가뿐 아니라 전문가 사이에서 혼동을 야기하는 원인”⁹⁾이 된다고 지적한다. 이에 본 논문은 ‘포스트휴먼’을 트랜스휴머니즘과 기술적 포스트휴머니즘의 맥락에서 사용하고자 한다. 특히 기술적 포스트휴머니즘을 트랜스휴머니즘의 급진적 입장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입장을 트랜스휴머니즘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의 인간과 구분될 수 있는 ‘인간x.0’ 혹은 새로운 ‘슈퍼종’으로서 포스트휴먼의 과도기적 양상들과, 이를 지향하는 포스트휴먼 담론에 내재된 인간론과 유사 구원론의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6) 위의 책, 19.

7) 위의 책, 19.

8) Francesca Ferrando, *Philosophical Posthumanism*, 이지선 역, 『철학적 포스트휴머니즘: 포스트휴먼 시대를 이해하는 237개의 질문들』(과주: 아카넷, 2019), 65.

9) 위의 책, 65.

1.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먼

트랜스휴먼, 트랜스휴머니즘의 용어 유래는 단테(Dante Alighieri)의 『신곡(LA COMMEDIA DI DANTE ALIGHIERI, 1320)』의 ‘트라수마나르(trasumanar)’라는 “인간을 넘어선다는 뜻의 동사”¹⁰⁾를 창안한 것을 시작으로 20세기의 SF소설과 여러 에세이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오늘날 사용되는 ‘트랜스휴머니즘의 의미와 가장 유사한 언급으로 진화 생물학자인 줄리안 헉슬리(Julian Huxley)의 저서 『계시 없는 종교(Religion Without Revelation, 1927)』에서 비롯되었으며, 현대의 트랜스휴머니즘의 직접적인 사상적 영향은 미래학자인 막스 모어(Max more)의 에세이 “트랜스휴머니즘: 미래주의 철학을 향하여”(Transhumanism: Toward a Futurist Philosophy, 1990)에서부터 기원한다.¹¹⁾ 모어는 여기서 트랜스휴머니즘의 비전을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다.

트랜스휴머니즘은 우리를 포스트휴먼의 조건으로 인도하는 일군의 철학이다. 트랜스휴머니즘은 이성과 과학을 존중하고 진보를 확산하며 어떤 초자연적 내세보다 이승의 인간(혹은 트랜스휴먼) 존재를 가치 있게 여긴다는 점에서 휴머니즘과 같은 요소를 공유한다. 그러나 트랜스휴머니즘은 신경과학, 신경 약물학, 수명 연장, 나노기술, 인공 초지능, 우주 거주와 같은 다양한 과학과 기술이 합리주의 철학 및 가치 체계와 결합할 우리 삶의 본성과 가능성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인정하고 기대한다는 점에서 휴머니즘과 다르다.¹²⁾

이러한 막스 모어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일군의 학자들은 1998년 세계

10) Francesca Ferrando, *Philosophical Posthumanism*, 70.

11) 주기화, “트랜스휴머니즘의 호모 데우스 프로젝트,” *몸문화연구소* 편저, 『지구에는 포스트휴먼이 산다』 (서울: 필로소픽, 2017), 114.

12) 위의 책, 114.

트랜스휴머니스트협회(ITA, International Transhumanist Association)을 설립하고, 트랜스휴머니즘의 이상과 이념의 합의점을 도출하여 함께 〈트랜스휴머니스트 선언문〉(2002)을 발표한다.¹³⁾ 그리고 이 협회는 2008년 Humanity+라는 이름으로 변경하고 이전의 입장을 계승·발전시켜 2009년에는 새로운 선언문을 발표한다.¹⁴⁾ 이처럼 현대의 트랜스휴머니즘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사조가 아닌 일종의 합의를 통해 여러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는 운동이자 사조의 흐름을 일컫는다. 그래서 페란도는 트랜스휴머니즘을 ‘트랜스휴머니즘(들)’¹⁵⁾이라는 복수형으로 부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트랜스휴머니즘의 공통점은 언제나 과학기술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과학기술을 통해 도달해야 할 목표는 인간의 ‘수명연장’과 ‘향상’,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불사’이다. 그리고 자연적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인간의 존재양식을 ‘포스트휴먼’이라 부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트랜스휴머니즘에 따르면 우리는 아직 ‘포스트휴먼’이 아니다. 현재 인간은 ‘트랜스휴먼(transhuman)’이라 부를 수 있으며, 이는 포스트휴먼¹⁶⁾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에 해당한다.

13) 위의 책, 116.

14) 신상규,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 포스트휴먼과 트랜스휴머니즘』(서울: 아카넷, 2014), 108-109.

15) Francesca Ferrando, *Philosophical Posthumanism*, 74.

16) 트랜스휴머니즘 안에서 포스트휴먼에 대한 이미지는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마인드 업로딩(mind uploading)을 통해 우리의 신경학적 정보를 컴퓨터 혹은 안드로이드에 이식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신체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상상되는 반면, 첨단 나노테크놀로지의 도움을 받으며 새로운 보철기술과 결합하여 노화를 방지하며 삶을 존속하는 상상력도 있다. 다양한 포스트휴먼에 대한 상상력에 대해 미디어 학자 마정미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높은 지능을 가진 인공적 존재들(AI), 인공적인 전자적 생명체,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보존되고 로봇 속에 저장된 인간 의식, 인간과 기계가 융합된 사이보그, 유전공학적으로 조성된 안드로이드, 혹은 복제된 클론, 유전자가 업그레이드된 강화인, 전자공학적으로 능력이 강화된 인간, 그리고 사이버공간의 사이버 자아, 아바타 등이 있다.” 마정미, 『포스트휴먼과 탈근대적 주체』(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4.

이탈리아의 과학저널리스트인 로베르토 만조코(Roberto Manzocco)의 간략한 정의에 의하면 “트랜스휴먼은 자연에서 부과된 한계에 무리를 가하는 우리의 체조·식이요법·의학 관행을 가지고 있고, 성형수술, 성전환수술,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제를 가지며, 인공사지와 장기는 말할 것도 없고 안경과 보청기를 가진 현재의 우리 인간이다.”¹⁷⁾ 즉 현재 도구 혹은 기계와 결합하여 사이보그로서 살아가고 있는 과학기술시대의 인간존재의 양태를 일컬어 트랜스휴먼이라 부를 수 있다. 그렇다면 트랜스휴먼에서 포스트휴먼으로의 도약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대표적인 트랜스휴머니스트이자 구글의 인공지능 엔지니어이자 책임이사인 레이 커즈와일(Ray Kurzweil)에 의하면 포스트휴먼의 등장은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을 초월하는 ‘특이점(singularity)’이 실현되는 시점에 도래한다. “이제 인간은 점점 발전하는 기술과 합심해서 차세대 기술을 창조하고 있다. 특이점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인간과 기술 간의 구별이 사라진 것이다.”¹⁸⁾

커즈와일에 따르면, 특이점을 실현하는 현재의 최첨단 기술은 ‘GNR(유전학, 나노기술, 로봇공학)’ 혁명이다. 그는 유전공학(G)을 통해 “질병을 근절하고, 인간의 잠재력을 넓히고, 수명을 놀랍도록 연장하는 법을 배우고 있으며”¹⁹⁾, 나노기술(N)은 “몸과 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분자 수준으로 정교하게 재설계하고 재조립하게 해줄 것”²⁰⁾이라 전망한다. 또한 가장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 예상되는 분야는 로봇공학(R)으로 점차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17) Roberto Manzocco, *Transhumanism - Engineering the Human Condition: History, Philosophy and Current Status*, 유용석·김동환 역. 『트랜스휴머니즘의 역사와 철학: 인간을 재설계하다』 (전북: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83.

18) Ray Kurzweil, *The Singularity is Near: When Humans Transcend Biology*, 김명남·장시형 역. 『특이점이 온다: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 (서울: 김영사, 2016), 69.

19) Ray Kurzweil, *The Singularity is Near*, 278.

20) 위의 책, 278.

그리고 이러한 인공지능이 출현하게 되었을 때, 인간은 자신의 뇌를 스캔하여 자신의 정보를 육체를 벗어나 인공지능 혹은 디지털 세계에 업로딩(mind uploading)하여 불사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GNR-테크놀로지를 통해 먼저는 치료와 향상을 시작으로 마인드 업로딩에 이르는 포스트휴먼 기술의 실제적인 양상과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포스트휴먼과 GNR-테크놀로지: 인간향상과 마인드 업로딩

트랜스휴머니즘 안에는 다양한 입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목표로는 인간향상을 통한 수명연장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트랜스휴머니즘의 급진적인 이들은 수명연장을 넘어 마인드 업로딩을 통해 죽음을 극복하여 불사에 이르고자 한다. 이러한 트랜스휴머니즘의 급진적인 목표를 일컬어 몇몇의 학자들은 ‘프로메테우스의 꿈’, ‘호모데우스 프로젝트’, ‘AI 프로젝트’²¹⁾라 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프로메테우스’, ‘호모데우스’, ‘AI’라는 수식어들은 모두 불사에 대한 일종의 종교적 열망(religious aspiration)을 반영하고 있다.²²⁾ 그렇다면 첨단 과학기술인 GNR-테크놀로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인간향상은 현실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예상되고 있는가? 신상규는 포스트휴먼의 구체적인 양상들로 ① 생명공학기술: 유전자 조작, ② 수명 연장, ③ 인체냉동보존술, ④ 프로스테시스 ⑤ 인간과 컴퓨터의 결합, ⑥ 나노 어셈블러, 슈퍼

21) 김동환, “AI(인공지능)에 대한 신학적 담론의 형성 및 방향 모색,” 『신학연구』 68 (2016).

22) 트랜스휴머니즘을 종교운동으로 보는 관점은 낯설지 않다. 종교와 트랜스휴머니즘의 상관관계와 관련한 연구서들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Arvin M. Gouw and Brian Patrick Green and Ted Peters, Ed., *Religious Transhumanism and Its Critic* (London: Lexicon Books, 2022); Calvin Mercer and Tracy J. Trothen, Ed., *Religion and Transhumanism: The unknown Future of Human Enhancement* (California: Praeger, 2015).

니증, 업로딩²³⁾을 예시로 들고 있다. 신상규가 분류한 이러한 방법들 또한 커즈와일이 주목한 현재 GNR-테크놀로지²⁴⁾에서 실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다.

생명공학기술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단연코 유전공학(G)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생명공학기술은 성형과 라식, 신경약물치료²⁴⁾ 등과 같은 현실의 광범위한 신체변형과 치유, 강화를 포함하고 있지만, 수명연장과 불사의 실현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유전공학이다. 트랜스휴머니스트인 라메즈 남(Ramez Naam)에 의하면 수명 연장의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촉발시킨 계기도 유전공학의 성과에서 비롯된다. 구체적으로는 유전학자 톰 존슨(Thomas E. Johnson)과 그의 제자 프리드먼(DB Friedman)은 “딱 한 개의 유전자만 바뀌도 선충의 수명이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²⁵⁾ 연구결과를 1988년 저명한 과학 학술지인 「지네틱스(Genetics)」와 1990년 「사이언스(Science)」에 게재함으로써 인간의 수명이 유전자와 관련되어 있음을 확신하게 만들었다.²⁶⁾ 비록 수명연장과 관련된 유전학은 선충의 유전자연구에서 시작되었지만, “최근까지 과학자들은 선충, 과일파리, 벌레, 쥐 등에서 노화를 늦춰 주는 유전자를 100개

23) 신상규,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 73-97.

24) 위의 책, 74.

25) Ramez Naam, *More Than Human*, 남윤호 역. 『인간의 미래: 생명공학이여, 질주하라』 (서울: 동아아시아, 2007), 116; DB Friedman · Thomas E. Johnson, “A mutation in the age-1 gene in *Caenorhabditis elegans* lengthens life and reduces hermaphrodite fertility,” *Genetics* 118 (1988); Thomas E. Johnson, “Increased Life-Span in Age-1 Mutants of *Caenorhabditis elegans* and Lower Gompertz Rate of Aging,” *Science* 249 (1990/8). 이 두 논문은 유전공학이 생명연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킨 획기적인 연구로 평가받는다. 존슨은 선충의 유전자 돌연변이에 따른 수명연장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선충 *Caenorhabditis elegans*의 age-1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평균 수명이 65% 증가하고, 25°C에서 최대 수명이 110%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age-1 돌연변이를 가진 자웅동체는 야생 형에 비해 사망률 증가 속도가 50% 느리게 나타난다.” Ibid., 908.

26) 라메즈 남, 『인간의 미래』, 116.

이상이나 찾아냈다.”²⁷⁾

또한 2011년 「네이처(Nature)」에는 “특정 세포를 정기적으로 제거한 쥐가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²⁸⁾됨으로써, 인간의 노화를 방지하는 세포가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작금의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거대기업들, 투자자들은 매년 생명 연장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트랜스휴머니스트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중 상당수는 유전공학을 통해 “신체의 구성요소와 프로세스만 밝혀진다면 인간은 정보처리 시스템으로서 신체를 스스로 제어하고 조종할 수 있다”²⁹⁾라고 확신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바이오테크의 종사자들은 “유전자를 정복하고, 생물학 체계의 데이터를 분해하고, 이것들을 다시 합성하는 것은 향후 수십 년간 가장 긴장감 넘치는 도전 과제가 될 것”³⁰⁾으로 전망한다. 유전자 조작이 발달함에 따라 ‘맞춤 아기’를 부모의 기호에 따라 조작하는 시대도 머지않았다. 정치 철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27) 위의 책, 117.

28) Thomas Schulz, *Zukunftsmedizin: Wie das Silicon Valley Krankheiten besiegen und unser Leben verlängern will*, 강영욱 역. 『의학의 미래: 질병과 노화를 극복하는 첨단 의학의 진화』 (과주: 웅진지식하우스, 2020), 259. 본 연구의 공동저자들은 트랜스유전자 실험을 통해 노화 세포제거가 수명연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p16(Ink4a)라는 노화의 바이오마커를 사용해 INK-ATTAC이라는 새로운 트랜스유전자를 설계했다. 이 트랜스유전자는 약물 투여 시 p16(Ink4a)-양성 노화 세포를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 특히, 지방 조직, 골격근, 눈과 같은 조직에서 p16(Ink4a) 발현 세포의 제거가 나이와 관련된 병리 현상의 발생을 지연시켰다. 또한, 후기 생애에서의 노화 세포 제거는 이미 진행 중인 나이 관련 질병의 악화를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데이터는 세포 노화가 나이 관련 질병의 원인이며, 노화 세포 제거가 조직 기능 장애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키고 건강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Darren J Baker · Tobias Wijshake · Tamar Tchkonja · Nathan K LeBrasseur · Bennett G Childs · Bart van de Sluis · James L Kirkland · Jan M van Deursen, “Clearance of p16Ink4a-positive senescent cells delays ageing-associated disorders,” *Nature* 479 (2011), 232.

29) Thomas Schulz, *Zukunftsmedizin*, 260.

30) 위의 책, 272.

Fukuyama)의 전망에 의하면 “현대 유전공학의 궁극적 목표는 ‘맞춤아기 (designer baby)가 될 것이다.”³¹⁾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도 유사하게, 유전자 조작 또한 “처음에는 질병치료나 유전적 질환 예방을 위해 시작됐지만, 이제는 신체 기능 개선이나 소비자 선택을 위한 도구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³²⁾고 주장한다. 샌델에 따르면 앞으로 유전공학을 통해 시행될 기술양상은 “근육 강화, 기억력 강화, 신장 강화, 성별 선택”³³⁾ 등이 있다.

나아가 수명연장을 위한 유전공학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는 분야는 나노공학(N)이다. 특별히 근래의 바이오프린팅(bioprinting)기술은 대체 장기, 심장, 신장, 간 등을 배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특별히 미국의 재생의학 기업인 오가노보(organovo)는 “폐, 심장, 신장을 신장의 일부를 합성하고, 살아있는 간 조직을 배양하며, 인간의 생물학적 체계와 거의 흡사한 기관을 제작했다.”³⁴⁾ 이는 인간의 몸을 프로스테시스(prosthesis)로 대체하는 것과 달리, 인간의 신체조직과 가장 유사한 인공 신체물을 필요에 따라 우리의 구체적인 몸의 기관들에 대입·교체하는 것이다. 이처럼 나노공학과 바이오프린팅 기술에 근거하여 인공 조직과 기관을 만드는 분야를 일컬어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 혹은 재생의학(regenerative medicine)이라 일컫는다. 재생의학 또한 인공지능과의 협업으로 인간의 복잡한 장기와 기관, 뼈와 같은 신체 조직들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 가령 바이오 프린팅의 선두 기업인 “오가노

31) Francis Fukuyama, *Our Posthuman Future: Consequences of the Biotechnology Revolution*, 송정화 역. 『HUMAN FUTURE: 부자의 유전자 가난한 자의 유전자』(서울: 한국경제신문, 2003), 126.

32) Michael Sandel, *The Case against Perfection: Ethics in the Age of Genetic Engineering*, 이수경 역. 『완벽에 대한 반론: 생명공학 시대, 인간의 욕망과 생명 윤리』(서울: 와이즈베리, 2016), 25.

33) 마이클 샌델, 『완벽에 대한 반론』, 25.

34) Thomas Schulz, *Zukunftsmedizin*, 230.

보는 정상적인 기능을 갖추고 한 달간 생존할 수 있는 간 조직을 프린팅하는 기술을 보유³⁵⁾하고 있으며, “하버드대학교에서는 실제 인간의 신장과 비슷한 여과 기능을 갖춘 인공 신장 조직을 재현하는 수준³⁶⁾에 도달했다. 또한 이관표와 김소윤에 따르면 “기관 외에도 인공 식도(esophagus), 기관지(bronchus) 등이 개발 중에 있다.”³⁷⁾ 인공 신체중 가장 놀랄만한 것은 2017년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교에서 “실리콘으로 만든 인공 심장을 개발³⁸⁾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생명공학의 발전과 전망은 트랜스휴먼으로서 커즈와일이 예상한 ‘인간 2.0’으로 진입하는 구체적 양상들일 것이다. 나아가 커즈와일은 생명공학에 의한 신체의 부분적인 대체와 달리, 포스트휴먼으로서 ‘인간 3.0’의 단계에서는 “말 그대로 쉽게 신체를 바꿀 수” 있으며, “육체적 현현 자체도 내키는 대로 눈 깜박할 새에 바꿀 수³⁹⁾ 있게 된다고 전망한다. 따라서 커즈와일은 확실하게 인류에게 불사를 안겨주게 될 궁극적인 분야는 단연코 로봇공학(R)이라 확신한다. 커즈와일의 전망에 의하면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초월하는 특이점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인간에게 죽음이란 필연이 아닌 선택으로 전도될 것이다. 인공지능과 접촉한 인간은 더 이상 생물학적 육체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는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가 휴머니즘에 근거한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의한 인류의 궁극적인 의제는 결국 인간향상과 수명연장, 나아가 ‘불사’가 될 것이라는 예견과 맞닿아있다.⁴⁰⁾ 특이점이 실현되면

35) 위의 책, 233.

36) 위의 책, 234.

37) 이관표·김소윤, “현대의학의 영생 기술과 그 신학적 성찰: 텔로미어와 유전자 가위를 중심으로,” 『神學思想』 178 (2017), 291.

38) Thomas Schulz, *Zukunftsmedizin*, 240; ‘스위스 ETH, 3D프린터로 인공심장 제작: 로스트 왁스 구조 기술 활용’ 『로봇신문』 2017년 7월 20일자, 1면.

39) Ray Kurzweil, *The Singularity is Near*, 426.

“비생물학적 지능은 생물학적 지능에 깊이 스며들어 생물학을 재편하는 단계로 나아갈 것이다.”⁴¹⁾ 나아가 “생물학을 재편하는 시대는 생물학을 초월하는 시대”⁴²⁾로 진입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생물학의 초월시대야말로 트랜스휴머니즘의 포스트휴먼 프로젝트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비전, 곧 ‘테크노-종말론(techno-eschatology)’에 다름 아니다.⁴³⁾ 따라서 이러한 포스트휴먼의 비전의 반-신체화(de-embodiment)의 경향은 새롭게 등장할 ‘테크노-영지주의(techno-gnosis)’⁴⁴⁾의 인간론과 구원론, 그리고 종말론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3. 포스트휴먼의 인간 존엄성과 사회정의의 문제

이처럼 포스트휴먼 사회로의 진입은 첨단 GNR-테크놀로지에 의존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스트휴먼이 되기 위한 GNR 분야에서

40) Yuval Harari, *Homo Deus*, 김명주 역. 『호모데우스: 미래의 역사』 (서울: 김영사, 2017), 40-51.

41) Ray Kurzweil, *The Singularity is Near*, 591.

42) 위의 책, 592.

43) 기술과 종교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종교학자 로버트 제라시(Robert M. Geraci)는 트랜스휴머니즘의 낙관적인 기술담론과 ‘특이점’이라는 기술발전의 최종국면에 대한 예언을 일컬어 ‘종말론적 AI(apocalyptic AI)’라 명명한다. 나아가 제라시는 이러한 기술적 종말론의 원류는 서양의 역사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묵시전통과 종말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트랜스휴머니즘은 이러한 서구종교역사의 전개과정에서 등장한 새로운 종교운동라고 주장한다. “종말론적 AI는 종말론적 유대교와 기독교의 성스러운 세계관을 직접 차용한 기술적 신앙이다.” Robert M. Geraci, *Apocalyptic AI: Vision of Heaven in Robotic, Artificial Intelligence, and Virtual Re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36-37.

44) 테크노-영지주의는 고대의 영지주의가 몸과 영혼이 분리될 수 있으며, 인간의 정체성은 물질적 몸이라기보다 비물질적인 영혼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듯, 물리적 하드웨어와 정보인 소프트웨어는 분리될 수 있으며, 인간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물리적 하드웨어를 교체하며 영속할 수 있다고 믿는다. 박일준, “포스트-휴먼 시대의 신학: 영지주의 시대의 망령 혹은 혹은 성육신의 새로운 이해,” 『신학과 세계』 65 (2016), 220.

행해지는 생체실험들, 예컨대 유전자조작, 배아의 줄기세포 연구, 바이오프린팅 및 인공보철물, 나아가 인공지능 연구와 이에 접목한 마인드 업로딩 등은 현재에도 인간 존엄성을 충분히 위협하는 실험들일 뿐 아니라, 이러한 과학기술공학이 추구하는 포스트휴먼의 전망들 또한 생명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실험들과 존재양식을 함의하고 있다. 특별히 유전공학의 실험에서 나타나는 존엄성의 침해문제는 생명윤리적인 쟁점으로서 나노공학과 로봇공학에 앞서 먼저 가장 논쟁적으로 논의되어왔다. 미래 사회의 특징으로 여겨졌던 유전자 편집을 통한 ‘맞춤 아기’는 2018년 중국에서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저항성을 가진 유전자”와 “불임 치료를 받은 일곱 커플에게서 나온 배아를 편집”⁴⁵⁾하여 탄생한 아기의 등장으로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재’의 문제가 되었다.

셴델에 의하면 자연적으로 주어진 우리의 본성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gift)’과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생명을 선물로 여기는 셴델의 관점은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고백하는 창조신앙과 부합한다. 창조신앙의 관점에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선물의 흔적”⁴⁶⁾이다. 하지만 마이클 셴델의 비판처럼 유전자 조작을 통한 ‘맞춤 아기’의 시행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출생에 개입하여, 출생을 ‘제작’이라는 인위적인 과정으로 변모시킬 것이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배아의 존엄성 또한 침해될 수밖에 없다. 인간 존엄성의 존중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과도 같은 유한성과 한계를 겸손히 수용하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그릇된 욕망에 근거하여 기준 없이 과감한 신체 조작을 유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더욱이 아기를 임의로 조작하는 탄생 과정에서의 부모의

45) 김광연, “유전자 편집 기술의 메타모포시스,” 『한국개혁신학』 62 (2019), 75.

46) Samuel Torode, *Pope John Paul II's The Theology of Body*, 김한수 역. 『처음 읽는 몸의 신학: 요한 바오로 2세의 '몸의 신학' 이해』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4), 40.

개입은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인간을 양육하고자 하는 욕망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욕망을 더욱더 추동하게 될 것이다.⁴⁷⁾

정치철학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 또한 셸의 ‘선물’유비와 유사하게 설명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존엄하다는 근거로서 전제되는 ‘요소 X’⁴⁸⁾가 철학과 종교에서 전제되어왔음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인권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인권의 근거는 언제나 선물로 주어진 인간의 ‘요소 X’라 부를 수 있는 ‘본성’과 결부되어 왔다고 주장한다.⁴⁹⁾ 나아가 이러한 확고한 인간 ‘본성’, ‘존엄성’,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는 “우리에게 도덕감을 부여하고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기술을 제공하며, 권리나 정의, 도덕과 같은 좀 더 복잡한 철학적 원칙에 대한 근거”⁵⁰⁾로 작동되어 왔다. 하지만 후쿠야마의 지적처럼 생명공학의 유전자 편집에 의해 “인간이 존재해온 이래, 변함없이 존재해온 도덕감의 바탕이 되어왔던 그 기반”⁵¹⁾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자녀의 미래를 계획하려고 하는 시도는 아이의 미결정성과 배아의 존엄성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규정하였다.⁵²⁾ 따라서 “하버마스는 생명공학에 나

47) 마이클 셸, 『완벽에 대한 반론』, 45.

48) ‘요소 X’에 대해 후쿠야마의 정의는 다음을 참조하라. “우리에게 다른 생물체들보다 더 높은 존엄과 도덕적 지위를 부여해주는 것이 우리가 단순한 부분들의 집합이 아니라 복잡한 전체라는 사실과 관련된다면, 요소 X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간단히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즉 요소 X란 도덕적 선택이나 이성, 언어, 사회성, 감정, 의식 또는 인간 존엄의 근거로서 주장되었던 어떤 특성들로 환원될 수 없다. 이러한 모든 특성은 인간이라는 전체 안에 함께 존재하면서 요소 X를 구성한다.” Francis Fukuyama, *Our Posthuman Future*, 261.

49) 위의 책, 161.

50) 위의 책, 162.

51) 위의 책, 162.

52) 김광연, “자유주의 우생학과 생명정치: 유전자 결정론과 생명계급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타난 우려에 대해 지적하면서 ‘익명성’을 지닌 배아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였다.”⁵³⁾ 이처럼 유전자 조작을 통해 인간을 강화하려고 하는 시도는 배아의 존엄성과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기독교 윤리의 관점에서조차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유전자 조작은 우리에게 부여된 피조성을 망각하고 인간의 한계를 스스로 극복하려는 ‘신 놀이(God Playing)’⁵⁴⁾를 자행하는 것에 가깝다. 따라서 루터교 조직신학자 테드 피터스(Ted Peters)의 표현처럼 인간 본성과 존엄성을 훼손하는 ‘신 놀이’는 “하나님이 정한 자연의 과정에 인간이 무단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인간의 교만의 표현이자 오만한 범죄”⁵⁵⁾라 할 수 있다.

하라리의 염려처럼 마인드 업로딩 후의 인간 본성은 더 이상 ‘인간’이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되었을지도 모른다. 언급했듯, 하라리는 기술로 인해 본성의 급격한 변화를 겪은 존재를 ‘호모 데우스’라 명명한다. 트랜스휴머니스트는 이처럼 기술로 인해 신체의 한계를 완벽히 극복한 ‘호모 데우스’를 ‘포스트휴먼’으로 부를 것이다. 여기서 ‘접두사’ ‘post’는 인간 ‘이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인간 종의 극복, 인간 이후의 새로운 인간으로 규

로,” 『생명윤리정책연구』 8 (2014), 124.

53) 위의 책, 124.

54) Ted Peters, *Playing God?: Genetic Determinism and Human Freedom* (New York: Routledge, 2003), 219.

55) Ibid., 219. 인간에게 정해진 고정·불변의 본성을 훼손한다는 관점은 인간 정체성에 대한 실체중심적이며 본질주의적인 한계를 지닌다. 나아가 인간과 기술의 공생이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켜 왔다는 현대 기술철학의 관점에 의하면, 이러한 기술비판은 인간중심적인 기술부정론으로 읽힐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현대의 유전자 공학이 치료를 넘어 강화의 수단으로 인간 유전자를 수정하려고 하는가’라는 물음 속에서 드러나는 기술숭배적인 종교적 열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테드 피터스가 언급한 ‘신 놀이’는 기술숭배에 대한 중요한 문제의식을 제공하는다. 관련하여 인간과 기술의 공생적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국내의 연구서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손화철, 『호모 파베르의 미래: 기술의 시대, 인간의 자리는 어디인가』 (서울: 아카넷, 2020); 김재희, 『시몽동의 기술철학: 포스트휴먼 사회를 위한 청사진』 (서울: 아카넷, 2017).

정할 수 있다. 이는 유전자 공학보다도 급진적인 방식인 ‘마인드 업로딩’에 의해 실현 가능한 존재로, ‘마인드 업로딩’은 “유기적 부분이 전혀 없는, 완전한 비유기적 존재”⁵⁶⁾다.

우리는 이러한 ‘포스트휴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물을 수밖에 없다. ‘몸’이 없는 인간이 우리의 인류의 최종적인 의제가 되어야 하는가? 인간 삶의 목적은 무한정한 삶의 연장에 있는가? ‘몸’으로부터의 탈출이 과연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있을까? 나아가 우리가 ‘포스트휴먼’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바랄 수 있는가?⁵⁷⁾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앙에 입각한다면 이러한 물음들을 결코 긍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몸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영-육의 통전적인 ‘몸의 구원’과 ‘몸의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지 몸과 분리된 ‘정신’과 ‘마음’의 구원 혹은 부활을 꿈꾸지 않는다.

또한 포스트휴먼 시대 기술격차 혹은 기술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부정의의 문제 또한 결코 간과될 수 없다. 따라서 첨단과학기술이 지향하고 있는 포스트휴먼 사회의 양상들이 생명윤리적으로뿐 아니라 사회윤리와 정의의 관점에서 과연 낙관적으로만 전망될 수 있는 것인지도 함께 성찰되어야 한다. 이러한 성찰에는 필연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기술 자체에 대한 낙관적 관점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⁵⁸⁾ 근본적인 물음이 요청된다. GNR-테크놀로지로 인해 변형되는 인간의 신체는 사회 계급에 따라 강화와 향상의 정도가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유전공학에 의한 차별적 미래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영화로

56) Yuval Harari, *Homo Deus*, 71.

57) 기독교 윤리학자 김동환 또한 미래인간의 구원이 만약 현세에서의 디지털 불멸을 의미한다면, 이와 같은 기술-구원론은 그리스도교적 구원론과 양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코 수용될 수 없는 형태임을 명백히 분석하고 있다. 김동환, “미래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가,” 『神學思想』 160 (2013), 141-166.

58) 유경동, “‘포스트-휴먼(post-human)’과 과학기술,” 『神學思想』 183 (2018), 118.

〈가타카〉(Gattaca, 1997)가 있다. 영화의 배경은 유전자 조작을 통한 ‘맞춤아기’가 합법화된 사회로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는 충분한 부를 지닌 가정에서 태어난 맞춤아기는 성인이 되어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 반면,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나지 못한 아이는 훗날 ‘맞춤아기’로 태어난 이들이 다니는 직장에 결코 취직할 수 없다. 이는 능력의 차이로 기인하는 자유주의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듯하지만, 이면에는 ‘열성인자’와 ‘우성인자’를 구별하는 새로운 차별적인 시대 분위기로 인해 유전자 조작의 혜택이 암묵적인 사회 계급의 징표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타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유전자 편집이 일상이 된 포스트휴먼 시대는 “우성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맞춤아기는 자연적인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보다 모든 조건에서 앞서기 때문에 성취를 위한 노력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사회”⁵⁹⁾로 진입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것은 사회 엘리트가 사회적인 이점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전적으로 삽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⁶⁰⁾ 그러므로 앞으로 유전자 조작이 만연한 사회일수록 새로운 우생학적인 사회를 출현시킬 수 있는 위험성과 가능성을 내포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마인드 업로딩’을 통해 ‘호모 데우스’로 업그레이드 된 인간들과 그렇지 못한 인간들의 격차 또한 간과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라리의 전망처럼 첨단 기술로 인해 진화된 ‘포스트휴먼’은 오직 소수의 권력·자본가들만이 도달할 수 있는 값비싼 존재양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스트휴먼 시대에 이르러 “일부 사람들은 업그레이드되어 필수불가결한 동시에 해독 불가능한 존재로 남아 소규모 특권집단”⁶¹⁾이 되지만, “대부분

59) 김광연, “유전자 선별 시대에 분배정의의 실현을 위한 선교적 과제,” 『복음과 선교』 39 (2017), 70.

60) Francis Fukuyama, *Our Posthuman Future*, 239.

61) Yuval Harari, *Homo Deus*, 474.

의 사람들은 업그레이드되지 않을 것이고, 그 결과 컴퓨터 알고리즘과 새로운 초인간 양쪽의 지배를 받는 열등한 계급이 될 것이다.”⁶²⁾ 이러한 전망대로라면 기술을 통한 신체의 업그레이드의 유/무는 우월한 인종 혹은 강인한 유전자를 기준으로 차별적 계급화를 추구했던 나치의 우생학처럼, 포스트휴먼/휴먼의 계급을 구분 짓는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유례없는 소수와 다수의 비대칭적인 권력자본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기술격차로 인한 불평등 내지 새로운 계급의 출현이라는 디스토피아적 예측은 단순한 공상이 아닌 ‘격차의 시대’라 불릴 수 있는 우리 시대의 구체적인 현상과 지표에 근거해 있다.

경제학자이자 공학자인 에릭 브린운프슨(Erik Brynjolfsson)과 앤드루 맥아피(Andrew McAfee)의 분석에 따르면 아날로그 기술에서 디지털 기술로의 혁신이 이루어질 때, 부의 분배가 다수에게 이루어지기보다 소수 편향적인 부의 집중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가령 아날로그 사진에서 디지털 사진으로 전환되었던 시기, 비교적 최근에 출범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소수 남짓한 직원으로 시작하여 사용자 10억 명에 이르는 거대 플랫폼을 성공시켰다.⁶³⁾ 누군가는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나름의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졌다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에릭과 앤드루의 분석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 제1 기계시대라 할 수 있는 산업혁명에서부터 시작된 200년가량은 기술의 발전 속도는 전체 부의 증가로 귀결되는 추세를 보였지만,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새롭게 접어든 제2 기계시대인 현대에 이르러서 이 법칙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 중간 임금은 생산성을 따라

62) Ibid., 474.

63) Erik Brynjolfsson · Andrew McAfee, *The Second Machine Age: Work, Progress, and Prosperity in a Time of Brilliant Technologies*, 이한음 역. 『제2 기계시대: 인간과 기계의 공생이 시작된다』 (서울: 청림, 2014), 163.

가기를 중단했으며, 그런 결별이 이론적인 가능성일 뿐 아니라, 현재 경제의 경험적인 사실이기도 하다는 점을 보여준다.”⁶⁴⁾ 실례로, 1983년부터 2009년 사이의 미국의 소득 분포를 보면 “상위 5퍼센트가 국가 부 증가량의 80퍼센트를 가져갔는데, 그중 절반 이상은 상위 1퍼센트가 가져간 것이었고, 세분할수록 그런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⁶⁵⁾

이것은 비단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미국보다 복지국가라 생각되는 “스웨덴, 핀란드, 독일에서 소득 불평등이 더 빠르게 진행”⁶⁶⁾되고 있다. 에릭과 앤드루는 이처럼 기술로 인한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제구조를 일컬어 ‘슈퍼스타 경제’라 명명한다. 더욱 우려가 되는 점은 경제적 불평등이 다수의 실질적인 삶의 저하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라리의 전망처럼 이들의 정치적 불평등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⁶⁷⁾ “경제적 불평등은 더한 정치적 불평등을 낳을 것이고, 정치권력을 더 많이 틀어쥐는 이들은 그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치를 취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면서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을 것이다.”⁶⁸⁾ 더욱이 앞으로 인공지능의 범용화로 인한 자동화 사회에서는 낮은 임금의 노동자뿐 아니라 중산층 또한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윤이실의 전망처럼, “기술 발전이 이전에는 이러한 영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직종까지 확대됨에 따라 중산층은 가까운 미래에 실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⁶⁹⁾

‘호모 데우스’의 출현에 따른 포스트휴먼의 암울한 사회상은 단순히 디

64) 위의 책, 165.

65) 위의 책, 168.

66) Erik Brynjolfsson · Andrew McAfee, *The Second Machine Age*, 171.

67) 유발 하라리, 『호모데우스』, 511-514.

68) Erik Brynjolfsson · Andrew McAfee, *The Second Machine Age*, 218.

69) Yoon ISil, “Imago Dei and Human Dignity: Restoring Democracy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신학논단』 107 (2022), 194-195.

스토피아적 기술부정론으로만 평가절하될 수 없다. 이러한 포스트휴먼이 된 자와 되지 못한 인간의 차이에 의해 도래하게 될 이же껏 유례없는 경제적·정치적 불평등의 전망은 ‘포스트휴먼’의 문제가 비단 생명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존엄성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닌, 사회정의의 측면에서 반드시 동시적으로 함께 조망되어야 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포스트휴먼 사회로의 진입양상에서 나타나는 인간 존엄성 훼손과 사회정의의 문제는, 인간 존엄성의 근거이자 인간을 윤리적 존재로 규정하는 ‘하나님의 형상’ 개념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을 관계적이며 공동체적인 존재로서, 동시에 타자와 더불어 공생적 삶을 지향해야 하는 하나님 통치의 대리자이자 책임적 존재임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포스트휴먼 시대의 도래에도 여전히 인간이 공동체 안에서 수평적이며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고자 노력하는 실천적 의무를 당위로서 수행하여야 하는 존재임을 확실히 각인시킨다.

III. 하나님 형상의 관계적 인간학과 인간 존엄성, 그리고 사회정의

창세기의 창조기사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땅의 흙(אֶרֶץ הָאָדָמָה, aphar adamah)’과 ‘생기(חַיִּים נִשְׁמָתַי, hayyim nismat)’로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에 입각하여 창조하셨다. 따라서 인간은 땅의 흙과 생기, 하나님 형상의 통합체로서의 전인적(全人的) 인격이다.⁷⁰⁾ 전통적인 신학적 인간학의 규정처럼, 전인적 인격은 ‘몸(basar, soma)’, ‘혼(nephesh, psyche)’, ‘영(ruach, pneuma)’의 통전

70) Theodore Hiebert, “Air, The First Sacred Thing: The Conception of אֵר in The Hebrew Scriptures” in *Exploring Ecological Hermeneutics*, ed. Norman C. Habel and Peter Trudinger,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8), 12.

적 인간(holistic human)을 의미한다.⁷¹⁾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불가분리성은 이러한 인간의 전인적 인격 자체가 존엄성과 권리의 대상임을 지시하고 있다. 더욱이 ‘하나님의 형상’은 그저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인 수식어로만 이해될 수 없다. ‘하나님의 형상’의 개념은 정치적이며 실천적인 논조를 함의하고 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창1:27)했다는 창세기 창조기사 본문은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기록된 것으로, 당시 ‘신의 아들’ 혹은 ‘신의 형상’은 오직 바벨론 왕에게만 수식될 수 있는 표현이었지만, 창세기의 저자는 1장의 본문을 통해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급진적인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⁷²⁾ 이는 불평등과 억압에 대한 명백하면서도 암묵적인 항거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 개념은 인간의 평등한 ‘존엄성’을 지시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동등한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정의를 이룩해야 하는 지속적인 책임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하나님 형상의 관계적 인간학이 함의하고 있는 인간 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추구는 포스트휴먼 프로젝트의 비인간성을 고발하는 탁월한 윤리적 관점을 제공한다.

1. 하나님의 형상과 전인적 인격

성서에 근거한 신학적 인간학에 따르면 인간은 ‘몸-혼-영’의 통전적인 통일체이다. 히브리적 사유에 의하면 “육신과 영혼을 분리하여 파악하고

71) 심상태, 『인간: 신학적 인간학 입문』, (서울: 서광사, 1989), 63-38.

72) J. Richard Middleton, *The Liberating Image: The Imago Dei in Genesis 1*, 성기문 역, 『해방의 형상: 창세기 1장의 이마고 데이(Imago Dei)』 (서울: SFC, 2010), 301-307.

각각 달리 평가하는 입장은 전혀 생소하다.”⁷³⁾ 하나님의 형상도 마찬가지로 육신과 영혼 중 어느 한쪽의 기능에 집중된 능력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그동안 주로 인간의 이성적이며 정신적인 능력과 자유, 혹은 불변하는 영혼 내지는 본성처럼 이해되어 왔다. 루터교 교의학자 펠만(H. G. Pöhlmann)의 분석에 의하면 고대의 그리스 교부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타고난 이성과 정신적 자유로 이해”⁷⁴⁾하였고, 중세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또한 이와 유사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이성과 정신력”⁷⁵⁾에 결부시켜 이해하였다.

즉, “고전적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로고스 혹은 이성을 통해 세상을 창조했으며, 따라서 인간은 이성을 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로고스 혹은 이성에 참여하며 그것(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⁷⁶⁾고 간주했던 것이다. 근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 자유의 능력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⁷⁷⁾ 가령 폴 틸리히(Paul tillich)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신적 로고스와 연결시켜 이성과 정신, 자유의 능력과 유사한 것으로 해석하였다.⁷⁸⁾ 허호익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처럼 서구 신학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영적 특징과 더불어 정신적인 특징인 인간의 이성, 인격, 자유의지, 책임성, 자의식 안에 내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왔다.”⁷⁹⁾

73) 심상태, 『인간』, 65.

74) Horst Gerog Pöhlmann, *Abriss der Dogmatik*, 이신건 역, 『교의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9) 201.

75) 위의 책, 201.

76) Daniel L. Migliore, *Faith Seeking Understanding: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신옥수·백충현 역, 『기독교조직신학개론: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254.

77) 위의 책, 254.

78) 허호익, “하나님의 형상론 연구: 하나님의 형상의 삼중적 삼중관계와 천지인의 조화,”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4 (2002), 284.

79) 위의 책, 284.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성’과 ‘정신’ 혹은 ‘자유의 능력’으로 해석하는 경향은 몸과 영혼, 혹은 물질과 정신의 이분법 속에서 전개되어왔던 로고스 중심적인 서구 철학의 사상사적 흐름과 단연코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의 형상이 비-물질적인 것으로 해석된다면, 신체적인 인간의 물질성을 경시하는 현대 기술종교의 인간이해를 비판할 수 있는 논거를 상실해버릴 것이다. 나아가 정신과 영혼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인간의 본질이 정신과 마음이기 때문에 마인드 업로딩을 통해 기존의 유기적 몸에서 벗어나 기계적 몸으로 대체하거나 컴퓨터로 정신을 옮겨도 무방하다는 트랜스휴머니즘의 테크노-영지주의에 동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의 특징이 전인적인 인간의 통전성과 결코 동떨어질 수 없음을 강조해야만 할 것이다. 관련하여 가톨릭 교의학자 카를로 라우다치(Carlo Laudazi)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포하는 전인적인 인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인간은 인격(persona)인 한에서 하나님의 모상으로 드러난다. 왜냐하면 그는 오직 인격인 한에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동반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인격이란 개념은 인간 전 존재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인격의 어느 일부분만 하나님을 닮거나 어떤 질적인 상태 또는 다른 그 무엇이 ‘모상(imago)’이라고 할 수 없다. 만일 인간이 인격인 한에서 하나님의 모상이라고 한다면, 인간 존재의 그 어느 부분도 이 모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⁸⁰⁾

인간의 인간됨(being human)은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땅의 흙과 생기는 물질적이며 영적인 토대의 종합 위에 기초하고 있음을 결코 간과해

80) Carlo Laudazi, *Temi fondamentali di antropologia teologica*, 윤주현 역, 『신학적 인간학』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4), 119.

서는 안 된다. 따라서 조용훈의 정의처럼,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간이 몸과 영혼으로 분리되지 않는 통일된 전체성(wholeness)으로서의 인격을 의미한다.”⁸¹⁾ 라우다치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한 인간과 하나님의 닮음은 “인간의 영(spirit)과 육(corpo) 모두를 아우르는 그의(하나님)의 인격적인 품위”⁸²⁾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인격이라 함은 그의 영과 육 모두를 아우르는 것”⁸³⁾이기에, 인격은 결코 탈-신체화(de-embodiment)된 정보나 마음 혹은 순수정신으로 환원될 수 없다. 왜냐하면 밀리오리의 설명처럼, “단순히 우리가 몸을 소유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⁸⁴⁾ 자체이기 때문이다.

밀리오리는 인간의 인격은 ‘몸’을 벗어나 생각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성육신 사건과 몸의 부활이라는 종말론적 신앙 또한 ‘몸’의 중요성을 어느 전통들보다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으로 구체화된 삶의 선함을 확증하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함을 가르치며 몸의 부활을 소망한다.”⁸⁵⁾ 마찬가지로 칼 바르트(Karl Barth) 또한 “사람은 그의 몸 생명이다. 이 몸은 어떤 다른 몸이 아니라, 그의 몸 자체”⁸⁶⁾라고 주장하며, 인간은 언제나 “몸적 영혼(bodily soul)’이며, 영혼화 된 몸(besouled body)”⁸⁷⁾으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의 통전적 인간 이해는 테크노-영지주의의 몸을 배제한 ‘정보-일원론(infor-monism)’, ‘패터니

81) 조용훈, “하나님의 형상 개념에서 본 4차 산업 혁명의 도전과 기독교 신학의 과제,” 『神學思想』 194 (2021), 108.

82) Carlo Laudazi, *Temi fondamentali di antropologia teologica*, 119.

83) 위의 책, 119.

84) Daniel L. Migliore, *Faith Seeking Understanding*, 258.

85) 위의 책, 259.

86) Karl Barth, *Church Dogmatics* III/2, trans. G.W. Bromiley and T.F. Torrance, (Edinburgh: T.&T. CLARK), 350.

87) 위의 책, 350.

즘(patternism)⁸⁸⁾을 거부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전인적인 인격은 결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인간의 현실성을 상실해서 삶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 존엄성

인권과 인간 존엄성의 기초는 스토아 철학의 ‘자연법’ 사상과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의 형상’에 근거한 인간이해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부인되기 어렵다. 특별히 고대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여러 차례 포로가 되거나 노예가 되었던 경험이 있었던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다고 선포함으로써 제국의 왕들과 제국의 노예를 포함하여 모든 인간이 존엄하며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선언했다.⁸⁹⁾ 이런 시대적 맥락에서 비추어보건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피조된 존재라고 선포한 『히브리 성서』의 구절은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⁹⁰⁾ 따라서 “이 고백을 통해 이스라엘 포로들은 신과 황제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더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⁹¹⁾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존엄성 보편성의 근거를 마련한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은 몸-혼-영의 전인적

88) Janina Loh, *Trans-und Posthumanismus zur Einführung*, 17-24.

89) 구약성서학자 민경구는 하나님 형상이 함의하는 인권의 정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창세기 1장은 왕의 우월성을 제거하고 모든 인간이 신 앞에 동등함을 선언한다. 환언하면, ‘인간은 평등하다.’ 이것은 인간 창조와 동시에 선언된 성서의 인권 이해이며, 따라서 우리는 성서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태초에 인권이 있었다.” 민경구, 『태초에 인권이 있었다: 구약 율법에 나타난 인간 권리 선언』 (서울: Ivp, 2024), 43-44.

90) 김기석, “인공지능과 인간의 위기,” 성공회대학교 신학연구원 과학-생태신학연구소 편 저,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 상황에 대한 신학적 성찰, 성공회대학교 신학연구원 과학-생태신학연구소 편 (서울: 모시는사람들, 2022), 55.

91) 김기석, “인공지능과 인간의 위기,” 55.

인격과 동떨어질 수 없다.

창세기 9장 6절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율법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창9:6) 여기서 몸의 ‘피’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에게 함부로 하나님의 형상의 물리적 존엄성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인간 생명권(right to life)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하나님 형상의 생명권에 근거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이해한다면 “인간에 대한 모든 종류의 억압과 착취는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⁹²⁾이 된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존엄성이 결코 몸에 근거한 전인적 인격을 배제하고 생각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 형상에 근거한 인간 존엄성의 관점에서 포스트휴먼 프로젝트의 중심인 유전자 조작과 필요 이상의 신체변형을 통해 유한한 신체의 유한성을 초극하려는 ‘프로메테우스적 열망’은 허용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몸을 완전히 기계로 대체시키고, 디지털 세계로 정신을 전송시켜 불사에 이르고자 하는 마인드 업로딩 또한 하나님 형상의 인간론에 도전하는 공상적이며 비윤리적인 발상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급진적인 신체변형을 통해 불사에 이르고자 하는 바이오테크 시대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유한한 몸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태도를 통해 전인적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를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한다.

3. 하나님의 형상과 사회정의

더욱이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92) 김균진, 『생태학의 위기와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197.

인간의 의존성을 암시하고 있다. 카를로 라우다치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의 관계야말로 인간 존재의 바탕이자 그를 규정짓는 핵심 요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⁹³⁾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성과 의존성을 드러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의존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인간과 인간 사이로도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존재론적 규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타자와 공동체들에게도 확장해야 할 의무와 책임성을 수반하는 존재규범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포하는 “인간의 존재론적인 특성상, 인간이 하나님과 갖는 관계는 그가 세상과 그리고 다른 존재들과 더불어 갖는 관계에 있어서 근원이 된다.”⁹⁴⁾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과 하나님, 타자와의 관계성으로 이해하는 해석은 인간을 관계적이며 공동체적인, 나아가 윤리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통찰을 제공해준다. 실제로 성서의 본문은 창조 때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창조되었다는 유비를 통해 의존적이며 관계적인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창조 때에 인간이 다른 못 피조물들과도 더불어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형상의 공생적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명백히 시사한다. 따라서 밀리오리는 이러한 창세기 본문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인간의 참된 정체성이 인간 상호 간의, 또한 다른 피조물들과의 공존에 있음을 의미한다”⁹⁵⁾고 주장한다. 칼 바르트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유비하고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인간이 타자와 공동체 안에서 조화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⁹⁶⁾

93) Carlo Laudazi, *Temi fondamentali di antropologia teologica*, 110.

94) 위의 책, 112.

95) Daniel L. Migliore, *Faith Seeking Understanding*, 255-256; 260.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이웃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타자와 공동체의 존엄성과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억압의 상황에 함께 연대하며 저항해야 하는 책임과 능력 또한 부여받았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서로에 대해 취해야 할 정당한 태도, 즉 “연대와 상호 사랑”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강조”⁹⁷⁾한다. 나아가 개인주의적 자아에 함몰된 현대인들에게 “모든 인간은 존엄성을 부정당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연대하여 헌신할 책임이 있으며,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의 조화와 평화를 위해 노력할 책임”⁹⁸⁾이 있음을 상기시킨다.

독일의 조직신학자 미하엘 벨커(Michael Welker)는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인간의 ‘책임성’을 일종의 당위적인 ‘소명(beruf)’⁹⁹⁾으로 해석하고 있다. 벨커에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소명은 ‘정의’, ‘자유’, ‘진리’, ‘평화’에의 추구다. 이러한 네 가지의 보편적인 가치는 인류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무수히 얽힌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실천적으로 지향하고 이룩해야 하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그저 인간의 존엄성만을 상징하는 존재론적 규정을 넘어 역동적인 인간의 관계성과 책임성의 능력과 소명을 표현하고 있는 윤리적인 존재규범의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 관련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정의 추구의 소명에 대해 벨커는 “인류는 불의와 불평등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정의의 기상으로 정의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¹⁰⁰⁾고 주장

96) 김동환, “AI(인공지능)에 대한 신학적 담론의 형성 및 방향 모색,” 『神學研究』 68 (2016), 41.

97) Yoon ISil, “Imago Dei and Human Dignity,” 199.

98) 위의 책, 199.

99) Michael Welker, *In God's Image: An Anthropology of the Spirit*, 김희권 · 이강원 역.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영(靈) 인간학』 (서울: PCKBOOKS, 2022), 9.

한다.

따라서 사회정의에의 소명을 부여받은 하나님 형상의 책임성은 “슈퍼 인간들(superhumans)과 인간들(humans) 사이의 존재론적 차이와 차별 그리고 위계질서를 낳는 시대”¹⁰¹⁾에 맞서 연대와 공생을 지향하는 대안적 삶을 요구한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은 소수의 권력계급만이 도달할 수 있게 되는 ‘포스트휴먼’의 존재양식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이 이룩될 수 있는 ‘공동선(common good)’을 추구한다. 공동선이란 “정의로운 제도 안에서 타인과 함께, 그리고 타인을 위한 ‘좋은 삶’을 지향”¹⁰²⁾하는 것으로, 이는 “각 개인이 번영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¹⁰³⁾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수반한다. 따라서 제2기계시대, 소수의 권력 엘리트들이 부를 독점화함에 따라 그 외 절대다수가 실업의 위기 혹은 저임금의 노동조건에 내몰리게 될 때, ‘정의에의 소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보장을 위한 실천적 연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더욱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세상 안의 거룩한 공교회성(universal church) 안에서 횡단적 연대¹⁰⁴⁾를 통해 타자와의 수평적 접촉과 연결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 형상의 공생적 연대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상하기 위한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사회제도의 모색을 끊임없이 촉구하기 때문이다.

100) 위의 책, 162.

101) 박일준, 『인공지능 시대 인간을 묻다: 인간과 기계의 공생을 위한 포스트휴먼적 존재론』 (서울: 동연, 2018), 180.

102) Yoon ISil, “Imago Dei and Human Dignity,” 203.

103) 위의 책, 203.

104) 고희상은 부활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횡단적으로 연결된 목적 존재의 존재양식을 ‘횡단신체성’이라 규정한다. 그에 따르면 성만찬과 공교회 안에서 횡단-신체적 존재들은 상호 연결된 몸들과의 공감과 연대를 지향하는 새로운 흐름을 형성한다. 고희상, “포스트휴먼 시대에 몸의 의미와 신학적 전유,” 『대학과 선교』 49 (2021), 85.

IV. 나가는 말

트랜스휴머니즘에 따르면 기술은 억제되어야 하기보다 빠르게 발전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들은 비가시적인 것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종교를 통해 영생을 꿈꾸기보다 가시적이며 경이로운 기술수단을 통해 영생을 신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트랜스휴머니즘의 기술담론을 빙자한 종교담론이 테크노벨리의 거물들과 기술자들, 나아가 정계는 물론 대중문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트랜스휴머니즘 담론이 지시하는 그릇된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 나아가 무분별한 기술숭배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신학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트랜스휴머니즘의 기술-종말론이 예상하는 GNR-테크놀로지의 전개양상이 인간 존엄성에 대한 경시, 나아가 빈부격차와 같은 사회적 정의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발전하게 될 시 초래할 수 있는 윤리적 쟁점들 또한 결코 간과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기술담론과 기술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선도하는 트랜스휴머니즘에 대한 경계와 비판적 이해가 요청된다. 트랜스휴머니즘은 유사종교(quasi-religion)로서 기술숭배에 근거한 독특한 인간론과 구원론, 나아가 종말론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랜스휴머니즘은 기술의 무한한 잠재력에 대한 맹목적인 신념을 강조하며, 인간 본성의 한계를 초월하고자 하는 욕망을 과도하게 기술적 발전에 투사함으로써 기술에 의지한 구원론과 종말론을 개진한다. 이러한 기술에 대한 맹목적인 신념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왜곡하고, 첨단기술에 의해 야기되는 윤리적 쟁점들을 쉽게 간과함으로써 그리스도교적 전통에서 강조되는 목적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관에 도전한다.

둘째, 트랜스휴머니즘의 테크노-종말론을 실현시켜줄 GNR-테크놀로지의 실제적인 전개양상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복잡한 윤리적 이

슈들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기술격차로 인해 벌어지는 포스트휴먼과 일반인간의 이분화와 더불어 유례없는 빈부격차를 야기할 수 있는 실제적인 위협성을 내포한다. 앞서 본 바, GNR은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하는 데 일면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생명경시와 존엄성을 침해하는 기술수단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기술발전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만 집중될 경우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새로운 엘리트 계층인 ‘포스트휴먼’과 기존의 인간들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차별을 초래할 수 있는 위협성이 있기에, 교회와 신학은 기술발전의 페이스를 빠르게 추적하고 윤리적 시각에서 적절히 응답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인 ‘기술-문해력(technology-literacy)’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신학적 인간학은 몸의 존엄성과 관계성을 강조함으로써, 탈-신체화를 지향하며 무분별한 신체변형을 추구하는 트랜스휴머니즘적 ‘종교적 열망’에 근거한 ‘기술경향’, 나아가 ‘기술격차’를 고려하지 않는 ‘기술발전의 과도한 촉구’를 경계한다. 테크노-영지주의적 경향이 만연한 현대의 시대정신에 맞서 그리스도교 인간학은 인간이 ‘정보’나 ‘디지털’로 환원될 수 없는 ‘몸-혼영의 전인적 통합체’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바이오테크 시대에 요청되는 인간 존엄성의 근거를 몸과의 연관 속에서 제안한다. 더욱이 하나님의 형상에 근거한 그리스도교적 사회정의 담론은 기술격차에 따른 과도한 빈부격차와 포스트휴먼이라는 새로운 권력계급의 출현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사회적 관계 안에서 정의와 평화를 추구할 책임을 지닌 능동적인 존재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 개념이 함의하는 공동체적 인간이해와 정의담론은 사회정의를 위한 교회의 실천적 행동과 연대를 촉구하며, 포스트휴먼 담론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사회적, 윤리적 위기에 맞서 공공선을 지향하는 대안적 기술사회에 대한 청사진을 모색한다. 하나님의 형

상 담론이 지향하는 청사진은 인간의 존엄성과 유한성이 망각되지 않고, 기술의 응용과 혜택이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범위로 확장된 공의의 사회이다.

참고문헌

- 고형상. “포스트휴먼 시대에 몸의 의미와 신학적 전유.” 『대학과 선교』 49 (2021), 57-90.
- 김광연. “유전자 편집 기술의 메타모포시스.” 『한국개혁신학』 62 (2019), 70-96.
- _____. “자유주의 우생학과 생명정치: 유전자 결정론과 생명계급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생명윤리정책연구』 8 (2014), 109-130.
- 김균진. 『생태학의 위기와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 김동환. “AI(인공지능)에 대한 신학적 담론의 형성 및 방향 모색.” 『신학연구』 68 (2016), 35-36.
- 김동환. “미래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가.” 『神學思想』 160 (2013), 141-166.
- 김재희. 『시몽동의 기술철학: 포스트휴먼 사회를 위한 청사진』. 서울: 아카넷, 2017.
- 마정미. 『포스트휴먼과 탈근대적 주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 몸문화연구소 편. 『지구에는 포스트휴먼이 산다』. 서울: 펠로소픽, 2017.
- 민경구. 『태초에 인권이 있었다: 구약 율법에 나타난 인간 권리 선언』. 서울: IVP, 2024.
- 박일준. 『인공지능 시대 인간을 묻다: 인간과 기계의 공생을 위한 포스트휴먼적 존재론』. 서울: 동연, 2018.
- _____. “포스트-휴먼 시대의 신학: 영지주의 시대의 명령 혹은 혹은 성육신의 새로운 이해.” 『신학과 세계』 65 (2016), 205-241.
- 성공회대학교 신학연구원 과학-생태신학연구소 편.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 상황에 대한 신학적 성찰』. 서울: 모시는사람들, 2022.
- 손화철. 『호모 파베르의 미래: 기술의 시대, 인간의 자리는 어디인가』. 서울: 아카넷, 2020.
- 신상규.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 포스트휴먼과 트랜스휴머니즘』. 서울: 아카넷, 2014.
- 심상태. 『인간: 신학적 인간학 입문』. 서울: 서광사, 1989.
- 유경동. “‘포스트-휴먼(post-human)’과 과학기술.” 『神學思想』 183 (2018), 111-135.
- 이관표 · 김소윤. “현대의학의 영생 기술과 그 신학적 성찰: 텔로미어와 유전자 가

- 위를 중심으로.” 『神學思想』 178 (2017), 279-309.
- 조용훈. “하나님의 형상 개념에서 본 4차 산업 혁명의 도전과 기독교 신학의 과제.” 『神學思想』 194 (2021), 101-126.
- 허호익. “하나님의 형상론 연구: 하나님의 형상의 삼중적 삼중관계와 천지인의 조화.”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4, (2002), 277-310.
- Brynjolfsson, Erik · McAfee, Andrew. *The Second Machine Age: Work, Progress, and Prosperity in a Time of Brilliant Technologies*. 이한음 역. 『제2 기계시대: 인간과 기계의 공생이 시작된다』. (서울: 청림, 2014).
- Ferrando, Francesca. *Philosophical Posthumanism*. 이지선 역. 『철학적 포스트휴머니즘: 포스트휴먼 시대를 이해하는 237개의 질문들』. (파주: 아카넷, 2019).
- Fukuyama, Francis. *Our Posthuman Future: Consequences of the Biotechnology Revolution*. 송정화 역. 『HUMAN FUTURE: 부자의 유전자 가난한 자의 유전자』. (서울: 한국경제신문, 2003).
- Harari, Yuval. *Homo Deus*. 김명주 역. 『호모데우스: 미래의 역사』. (서울: 김영사, 2017).
- Kurzweil, Ray. *The Singularity is Near: When Humans Transcend Biology*. 김명남 · 장시형 역. 『특이점이 온다: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 (서울: 김영사, 2016).
- Laudazi, Carlo. *Temi fondamentali di antropologia teologica*. 윤주현 역. 『신학적 인간학』.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4).
- Loh, Janina. *Trans-und Posthumanismus zur Einführung*. 조창오 역.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 (부산: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 Manzocco, Roberto. *Transhumanism - Engineering the Human Condition: History, Philosophy and Current Status*. 유용석 · 김동환 역. 『트랜스휴머니즘의 역사와 철학: 인간을 재설계하다』. (전북: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 Naam, Ramez. *More Than Human*. 남윤호 역. 『인간의 미래: 생명공학이여, 질주하라』. (서울: 동아시아, 2007).
- Middleton, J. Richard. *The Liberating Image: The Imago Dei in Genesis 1*. 성기문 역. 『해방의 형상: 창세기 1장의 이마고 데이(Imago Dei)』. (서울: SFC, 2010).
- Migliore, Daniel L.. *Faith Seeking Understanding: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신옥수 · 백충현 역. 『기독교조직신학개론: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Rifkin, Jeremy. *The Biotech Century*. 전영택·전병기 역. 『바이오테크 시대』. (파주: 민음사, 1999).

Sandel, Michael. *The Case against Perfection: Ethics in the Age of Genetic Engineering*. 이수경 역. 『완벽에 대한 반론: 생명공학 시대, 인간의 욕망과 생명 윤리』. (서울: 와이즈베리, 2016).

Schulz, Thomas. *Zukunftsmedizin: Wie das Silicon Valley Krankheiten besiegen und unser Leben verlängern will*. 강영욱 역. 『의학의 미래: 질병과 노화를 극복하는 첨단 의학의 진화』. (파주: 웅진지식하우스, 2020).

Torode, Samuel. *Pope John Paul II's The Theology of Body*. 김한수 역. 『처음 읽는 몸의 신학: 요한 바오로 2세의 ‘몸의 신학’ 이해』.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4).

Welker, Michael. *In God's Image: An Anthropology of the Spirit*. 김희권·이강원 역.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영(靈) 인간학』. (서울: PCKBOOKS, 2022).

조인혜. “스위스 ETH, 3D프린터로 인공심장 제작. 로스트 왁스 주조 기술 활용.” 『로봇신문』. 2017년 7월 20일자, 1면.

Baker Darren J·Wijshake, Tobias·Tchkonina, Tamar·LeBrasseur, Nathan K·Childs, Bennett G·Sluis, Bart van de·Kirkland, James L·Deursen, Jan M van. “Clearance of p16Ink4a-positive senescent cells delays ageing-associated disorders.” *Nature* 479 (2011), 232-237.

Barth, Karl, *Church Dogmatics* III/2, Translated by G.W. Bromiley and T.F. Torrance. Edinburgh: T.&T. CLARK.

Friedman, B·Johnson, Thomas E. “A mutation in the age-1 gene in *Caenorhabditis elegans* lengthens life and reduces hermaphrodite fertility.” *Genetics* 118 (1988), 75-86.

Geraci, Robert M, *Apocalyptic AI: Vision of Heaven in Robotic, Artificial Intelligence, and Virtual Re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Gouw, Arvin M. and Green, Brian Patrick and Peters, Ted, Eds, *Religious Transhumanism and Its Critic*. London: Lexicon Books, 2022.

Habel, Norman C. and Trudinger, Peter, Eds, *Exploring Ecological*

Hermeneutics.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8.

Johnson, Thomas E. "Increased Life-Span in Age-1 Mutants of *Caenorhabditis elegans* and Lower Gompertz Rate of Aging." *Science* 249 (1990/8), 908-912.

ISil, Yoon, "Imago Dei and Human Dignity: Restoring Democracy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신학논단」 107 (2022), 194-195.

Mercer, Calvin and Trothen, Tracy J, Eds, *Religion and Transhumanism: The unknown Future of Human Enhancement*. California: Praeger, 2015.

Peters, Ted, *Playing God?: Genetic Determinism and Human Freedom*. New York: Routledge, 2003.

논문투고일: 2024년 10월 09일

심사개시일: 2024년 11월 17일

게재확정일: 2024년 12월 18일

• 국 문 초 록 •

본 논문은 첨단 테크놀로지를 통해 인간의 수명 연장과 신체 향상,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극복하려는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의 포스트휴먼 담론이 내포한 생명 경시, 인간 본성 왜곡, 유한성 망각, 엘리트주의와 우생학 강화, 기술격차의 간과 등의 문제를 기독교 윤리학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를 통해 포스트휴먼 담론이 함의하고 있는 종교적 인간론, 구원론, 종말론을 비판하고, 첨단기술시대에 요구되는 인간 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이론적 근거를 ‘하나님의 형상(Imago Dei)’개념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 개념이 특정 종교의 경계를 넘어 보편적 인권과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가치로 제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트랜스휴머니즘, 포스트휴먼, 호모데우스, 인간존엄성, 기술격차, 하나님의 형상
